

## [프로야구]넥센 염경엽 감독 "이정후 기본기부터 가르칠 것"

등록 2016.07.06 18:27:07 | 수정 2016.12.28 17:19:43



【서울=뉴스시스】황보현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 감독이 1차 지명선수로 뽑은 이정후(18·휘문고)의 육성 계획에 대해 밝혔다.

염 감독은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경기에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2군에서 집중적으로 수비나 기본기부터 가다듬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넥센은 2017년 1차 지명 신인인 휘문고 유격수 이정후와 계약금 2억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정후는 이종범 현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이다. 신장 185cm, 78kg의 체격 조건을 갖췄으며 수준급 컨택트 능력을 보유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후는 고교 통산 42경기에 출전, 타율 0.397(144타수 55안타) 1홈런 30타점 20도루 44득점을 기록 중이다.

염 감독은 "스카우트팀으로부터 타격에 재능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시즌이 끝난 뒤 마무리캠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후가 어떤 포지션에 설지는 아직 모른다. 1군 선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받쳐줘야 한다. 타격보다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bh@newsis.com